

# 갈레노스의 인간애(*philanthrôpia*) 관념과 의술의 목적

송유래\*

## 【요약】

갈레노스는 인간애(*philanthrôpia*)를 의료 행위의 중추적인 동기로 도입하고, 의술을 ‘인간애적 기술’(*technê philanthrôpos*)로 확립하길 시도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갈레노스의 인간애 관념을 규명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건강이 의술 고유의 목적인데 비해,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 인간을 돌보는 기술 일반의 목적임을 밝힐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갈레노스의 인간애 관념이 역경에 처한 인간들에게 이로움을 주려는 마음 자세, 즉 선행의 성향을 기본 의미로 하며, 이에 더해 관후와 친화의 의미를 포함하지만, 동정이나 연민의 감정과는 구분됨을 보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갈레노스의 인간애 관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이미 고전기 문헌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는 로마 제정기에 활동한 갈레노스가 철인 의사(哲人醫師)의 모범을 정립하기 위해 인간애 관념을 구성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 고전기 관념들에 호소했음을 암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갈레노스의 인간애 관념이 기술 일반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고전기 사유들이 집약된 결정체라는 해석과 더불어, 갈레노스가 이러한 인간애를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한 고전기 의사들에게 귀속시킨 것이 단순히 시대착오적인 오류가 아니라는 결론을 제안할 것이다.

【주제어】 갈레노스, 선행, 의술, 인간애, 철인 의사

---

\* 경희대학교 철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22년 6월 18일에 열린 경희대학교 HK+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제3차 프로메테우스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4058286).

\*\*\*\* 투고 논문의 맹점을 지적해 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https://doi.org/10.34162/hefins.2022..29.001>

## I. 서론

페르가몬의 갈레노스(기원후 129년~약 215년)는 서양 고대 의술을 집대성한 인물로서 고대 지중해 지역을 넘어 아랍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서구 유럽의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저술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식이요법, 약제학, 정신의학, 진단 및 치료법 등 의료 분야의 이론과 실천을 총망라한다. 나아가, 그의 연구는 의학 지식의 획득, 체계화 및 전수에 관한 방법론적 성찰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 의료 행위에 관한 윤리학적 반성을 아우른다. 이 점에서 의사 갈레노스는 철학자이기도 하다. 실제로, 갈레노스는 『가장 좋은 의사는 철학자이기도 하다』에서 ‘철인 의사’philosopher-doctor의 이상을 강력히 옹호했다.<sup>1)</sup>

갈레노스는 『의술』에서 의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는 목적telos 관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sup> 실제로 그는 『의술의 구성에 관하여』에서 의술의 목적을 건강으로 규정한 후, 의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는 의술을 건강을 만드는 기술로 규정하면서 ‘제작적인’ 기술의 일종으로 분류한다.<sup>3)</sup> 이처럼 그는 의술이란 과연 무엇이며, 의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무엇보다도 의술은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접근했다. 그가 의술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물을 때, 의사들이 실제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사로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묻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1) 갈레노스의 철인 의사론에 대해서 여인석 (2018), pp. 13-21 참조. 『가장 좋은 의사는 철학자이기도 하다』(Opt. Med.)에 대한 입문적인 해설은 Boudon-Millot (2007), pp. 237-251 참조. 갈레노스 저술 약어는 Nutton (2020), pp. 166-174 참조.

2) *Ars Med.* 1, 305 Kühn. 갈레노스 저술 인용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Kühn (1822-1833)의 편집본에 의거한다. 서양 고전 문헌 인용에서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편집자의 이름을 마지막에 제시한다.

3) *CAM* 1, 227-230 Kühn.

갈레노스는 ‘의철학’(iatrikê philosophia<sup>4</sup>)의 관점에서 의술의 목적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의술과 의사의 정체성에 대한 규범적인 질문을 던졌다.

흥미롭게도 갈레노스는 『히포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학설에 관하여』에서 이 규범적인 질문에 대한 심화 논의를 전개하며 인간애 관념을 도입한다.<sup>5</sup> 그는 몰욕이나 명예욕 때문에 의술을 행하는 것과 인간애 때문에 의술을 행하는 것을 구분한 후, 의사가 의사로서 추구하는 목적은 명성이나 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의사는 의사로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애 때문에 의술을 행하는 의사한테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갈레노스의 인간애 관념과 의술의 목적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갈레노스가 어떤 의미에서 ‘인간애’를 이해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하지만 갈레노스 전집에서 ‘인간애’는 자주 언급되지도 않을뿐더러 개념적으로 정의된 용어도 아니다.

사실, ‘인간애’로 옮긴 그리스어 ‘philanthrōpia’는 그리스 고전기에 통용되기 시작한 이후 갈레노스가 활동한 로마 제정기에 이르기까지 의미의 변천과 확대를 겪었다. 현대어에서 ‘philanthropy’는 박애博愛 또는 자선慈善, 특히 대규모 기부를 통해 가난한 이들을 돕는 독지篤志 활동을 가리킨다.<sup>6</sup> 갈레노스는 의술의 목적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philanthrōpia’를 명예에 대한 사랑이나 돈에 대한 사랑과 대립시킨다. 이 점을 고려해서 그것의 번역어로 ‘인간애’에 대한 사랑’ 내지 ‘인간애’를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갈레노스의 인간애 관념은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다만, 에텔슈타인은 윌리엄 오슬러의 의료 인문주의medical humanism의 사상적 근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논문에서 갈레노스의 인간애 관념에 상당

4) 의술에 관한 철학을 의미하는 ‘의철학’(iatrikê philosophia이라는 용어는 갈레노스가 말년에 집필한 『나 자신의 학설에 관하여』 (Prop. Plac. 15, 190. 5 Kühn)에 등장한다. 갈레노스의 의철학 구상에 대해서는 Devinant (2020), p. 15.

5) PHP IX 5, 564. 19-30 De Lacy.

6) Broadie & Rowe (2002), p. 407: “philanthropy as it is now understood, i. e. as large-scale generosity in the public interest.”

부분 논의를 할애했다.<sup>7)</sup> 에델슈타인은 갈레노스가 언급한 ‘*philanthrôpia*’를 ‘인류에 대한 사랑’*love of humanity*으로 번역하고, 이것을 스토아의 세계시민 사상과 연결시킨다.<sup>8)</sup> 나아가, 갈레노스의 인간에 관념에서 “고전기의 특징적인 외적 수행의 도덕성”*the morality of outward performance characteristic of the classical era*을 대체한 “내적 의도의 도덕성”*a morality of inner intention*을 발견한다.<sup>9)</sup> 이런 관점에서 그는 갈레노스가 인간애를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한 고전기 의사들에게 귀속시킨 것을 두고 “후대의 관념들을 그것들을 전혀 모르는 시대로 투사한 몰역사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sup>10)</sup> 그러나 그는 갈레노스가 말하는 인간애가 인류 전체로 확대된 사랑, 즉 인류애라는 해석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sup>11)</sup>

본 연구에서는 갈레노스가 ‘*philanthrôpia*’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재구성하길 시도한다.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친절’과 ‘선행’이라는 두 가지 관념과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우리는 갈레노스의 인간애 관념이 친절 내지 친화의 의미를 포함하지만, 그것으로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려는 마음 자세, 즉 선행의 성향이라는 의미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또한 그것이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의 감정과 구분됨이 밝혀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갈레노스의 인간애 관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이미 고전기 문헌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는 갈레노스가 인간애를 지닌 의사의 모범을 정립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그리스

7) Edelstein (1956), p. 392; p. 394; pp. 406-408. 오슬러의 의료 인문주의에 대해서는 Osler (1920) 참조.

8) Edelstein (1956), p. 392; pp. 406-407 (note 29).

9) Edelstein (1956), p. 406.

10) Edelstein (1956), p. 394.

11) 아문젠과 페른그렌은 고대 의학의 역사 속에 인간애 관념을 자리 매김하는 논문에서 갈레노스의 인간애를 다루었다. 저자들은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에델슈타인의 도식과 입장을 따랐다. 이 논문에서도 스토아주의가 갈레노스의 인간애 관념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Amundsen & Ferngren (1982), pp. 8-11.

고전기 관념들에 호소했음을 암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갈레노스의 인간애 관념이 기술 일반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고전기 사유들이 집약된 결정체라는 해석과 더불어, 갈레노스가 이러한 인간애를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한 고전기 의사들에게 귀속시킨 것이 단순히 시대착오적인 오류가 아니라 결론을 제안할 것이다.

## II. 의술의 목적

### 1. 무엇 때문에 의술을 행하는가?

갈레노스는 의술의 목적으로 건강을 제시하고, 의술을 건강을 산출하는 기술로 규정했다. 그런데 그는 의사들이 모두 환자의 건강을 돌보더라도 제각기 다른 이유로 의술을 행한다고 보았다. 그는 『히포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학설에 관하여』 9권에서 의술을 행하는 다양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인간애를 언급한다.

그러므로 의사도 의사인 한 그렇게 신체의 건강<sup>12)</sup>을 돌보지만,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 그렇게 하는 한, 그것에 따른 명칭도 얻을 것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돈벌이를 위해 의술을 행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법으로부터 자신들에게 허용되는 의무 면제로 인해, 몇몇은 인간애로 인해 διὰ φιλοανθρωπίαν, 다른 이들이 그것에 결부된 명성과 명예로 인해 그러듯이, 의술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건강의 장인匠人인 한에서 모두 공히 ‘의사’로 지칭되지만, 상이한

12) 갈레노스는 이 책에서 의술의 목적으로 신체의 건강만 언급하지만, 영혼 내지 정신의 건강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그는 『어떻게 영혼의 능력들이 신체의 혼합에 따르는가?』 (*QAM*)와 『환부에 관하여』 (*Loc. Aff.*) 등 에서 우울증, 광기, 착란, 기억상실증, 건망증 등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질환을 언급하며, 신체의 기능 장애, 특히 두뇌의 활동 손실과 연결시킨다. 갈레노스의 ‘철인의사’는 신체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돌봄으로써 인간의 총체적인 건강을 도모한다. 이에 대한 명석한 논의로 다음을 참조하라. Boudon-Millot (2013), pp. 129-145.

목표를 σκοποῖς 지닌 행위를 하는 만큼, 어떤 자는 인간을 사랑하는 자 φιλόανθρωπος이나, 다른 자는 명예를 사랑하는 자 φιλότιμος이고, 다른 자는 명성을 사랑하는 자 φιλόδοξος이지만, 또 다른 자는 돈 버는 자 χρηματιστής이다. 의사로서 의사에게 목적은, 경험학파의 메노도토스<sup>13)</sup>가 쓴 것처럼, 명성이나 이득이 아니다. 메노도토스에게는 그것이 목적 τέλος이지만, 디오클레스에게는 그렇지 않다. 히포크라테스와 엠페도클레스에게도 그렇지 않고, 고대인들 가운데 인간애로 인해 διὰ φιλανθρωπίαν 인간들을 치료한 적지 않은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지 않듯이 말이다.<sup>14)</sup>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의사는 “의사인 한(ἡ μὲν ἰατρός ἐστι: 19)” 건강을 돌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사는 “건강의 장인”, 즉 건강을 산출하는 기술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어떤 의사가 환자의 병세를 악화시키기 위해 의술을 사용한다면, 그는 의사가 아니라, 악한으로서 그렇게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갈레노스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 의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로서’ 의술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긴다. 그에 따르면, 의술이 가져다주는 이득이나 명성 때문에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는 의사로서 의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득이나 명성은 의사가 “의사로서” (ὡς ἰατροῖς: 27) 추구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갈레노스는 이득이나 명성 때문에 의술을 행하는 의사들로부터 ‘인간애로 인해’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들을 구별한다. 이러한 구별은 갈레노스가 인간애로 인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야말로 ‘의사로서’ 의술을 행한다고 여겼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의사는 의사로서 의술을 행하면서 환자를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그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sup>15)</sup> 그러므로 의사는 의사로서 의술을 행할 때,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

13) 니코메디아의 메노도토스는 기원후 125년 경 활동한 경험학파 의사이자 회의주의자이다. Petit (2009), p. 120.

14) *PHP* IX 5, 564. 19-30 De Lacy. 본 논문에 인용된 그리스어와 라틴어 원전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는 자'로서 행한다.

갈레노스는 의료 행위의 “상이한 목표에 따라” 의사를 ‘인간을 사랑하는 자’, ‘명예를 사랑하는 자’, ‘명성을 사랑하는 자’, ‘돈 버는 자’로 부른다고 했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자의 행위 목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가령 명예를 사랑하는 자의 행위 목표는 명예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자의 행위 목표를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인간애라고 하는 것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인간에는 명예욕이나 물욕 등에 상응하는 것으로 의료 행위의 목표나 목적보다는 오히려 동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예를 사랑하는 자는 명예욕으로 인해 행동하지만, 명예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듯이, 인간을 사랑하는 자는 인간애로 인해 행동하지만, 인간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의사가 인간을 사랑하는 자로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우선 그것이 건강과 달리 의술 고유의 목적일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기술들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글 교사는 한글 교사인 한에서 학생의 한글 습득을 목표로 하지만, 돈이나 명예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자로서 한글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인간을 사랑하는 자로서 추구하는 것이 몇몇 기술들에 공통된 목적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인간애가 의술의 목적을 다루는 논의에 도입된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 갈레노스는 의술의 목적을 다루기에 앞서 기술 techné<sup>16)</sup> 일반의 목적을 논한다. 주목할 점은 그가 기술이 기술을 지닌 자의

15) 환자를 ‘한 인간으로’ 대한다는 것은 성별, 직업, 신분, 빈부 격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대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의 실마리를 『작은 공 운동에 관하여』 (Parv. Pil.)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갈레노스는 건강 요법으로 일종의 공놀이 권하면서, 그것이 부유한 귀족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정치가, 학자, 수공업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준비 없이, 시간이나 돈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애적’ philanthrōpon이라고 말한다(5, 901 Kühn).

이익이 아니라, 기술의 돌봄을 받는 이의 이익에 종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플라톤의 『국가』 1권에 제시된 논의에 호소한다.

플라톤이 『국가』 1권에서 조타술과 의술을 포함한 많은 예를 들어 기술들이 그것들의 지배와 관리를 받는 저것들에게 - 자기 자신들에게가 아니라 - 이로움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주자, 트라쉬마코스는 비웃으면서 양들과 소들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마련하는 양치기들과 소치기들을 언급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양치는 기술과 소치는 기술을 통해 양들과 소들의 이로움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팔거나 먹기 위해 준비시키는 사람들은 [제각기] 목표와 목적이 다름을 보여 주었다.<sup>17)</sup>

잘 알려져 있듯이, 『국가』 1권에서 트라쉬마코스는 정의正義를 강자의 이익, 다시 말해 지배하는 자의 이익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일종의 기술이라면 지배받는 자의 이익이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이 맥락에서 트라쉬마코스는 정치가를 목자에 비유하며, 목자가 양과 소를 살피우는 것이 양과 소를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자

16) 갈레노스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구성된 앎으로 규정하며, 방법methodos에 의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앎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경험empēria이나 숙달tribē과 구별한다(PHP XI 5. p. 568, 21-24 De Lacy). 그는 기술의 체계적 구성을 위한 방법, 즉 ‘유사성과 차이성의 구분법’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로 히포크라테스와 플라톤을 꼽았다(PHP XI 4. p. 564, 2-9 De Lacy). 이런 시각에서 기술은 일종의 학문 epistēmē이고 기술자technitēs는 학자이다. 따라서 의술은 의학이며, 의사는 단지 수공업적인 ‘기술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지식에 정통한 기술자이다. 『의술의 권유』(Protr.)에서 갈레노스는 기술을 이성을 사용하는 ‘위엄 있는’semnas 부류와 신체적 노동을 사용하는 ‘저급하고 수공업적인’banaousos te kai cheirōnatikas 부류로 나누고, 의술을 음악학, 문법학, 산술학, 기하학, 수사술, 변증술, 입법술과 나란히 첫 번째 부류에 귀속시킨다. 그는 여기에 조각술과 회화술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은 손을 사용하지만 젊은이의 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XIV 5-6. 117, 2-14 Boudon). Boudon (2018), p. 117.

17) PHP IX 5, 564. 10-18 De Lacy. 플라톤, 『국가』 341c-342e; 343b; 345b-d. 플라톤의 저술 인용은 Stephanus (1578)의 편집본에 의거한다.



소크라테스는 양치기나 소치기가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치기나 소치기인 한, 양과 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한다는 주장으로 맞선다. 소크라테스의 논점은 가축을 돌보는 기술은 그 자체로는 돈벌이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갈레노스가 언급하지 않은 소크라테스의 세부 논변은 다음과 같다.<sup>18)</sup>

① 기술은 기술로서 미흡한 점이 없는 한, 기술자 자신이 아니라, 기술자가 돌보는 대상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한다.

② 각각의 기술은 고유한 이로움(êphelia)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의술은 건강을, 조타술은 항해의 안전을 제공한다.

③ 돈벌이에도 기술이 있다면, 그것이 제공하는 이로움은 다른 기술들이 제공하는 이로움과 다를 것이다.

④ 조타수가 항해로 인해 건강해졌다고 조타술을 의술로 부를 수 없듯이, 임금 노동자가 돈벌이를 통해 건강해졌다고 돈벌이 기술을 의술이라 부를 수 없다.<sup>19)</sup>

⑥ 각 분야의 기술자들이 어떤 이로움을 얻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기술로 인해서가 아니라, 돈벌이 기술을 덧붙여 사용한 결과이다.

⑦ 기술자는 무상으로(προικα) 기술을 행사할 수 있고 이로움을 줄 수 있다.<sup>20)</sup>

이 논변에 따르면, 모든 기술자는 돌보는 대상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각자 자신의 기술에 고유한 이로움을 준다. 이로부터 의사는 환자에게 건강을 제공함으로써 그가 돌보는 대상, 즉 환자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의술의 고유한 목적은 환자의 이익, 즉 건강이다.

18) 플라톤, 『국가』 345c-346e.

19) 플라톤, 『국가』 346b 10-11: “어떤 사람이 치료를 해 주고서 돈을 번다면, 의술을 돈벌이 기술로 부르겠소?”

20) 플라톤, 『국가』 346e1: “무상으로 일을 할 때엔 이로움을 주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인간에는 의술의 목적과 관련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건강이 환자의 이익이자 의술의 목적이라는 견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 2. 이롭게 하거나 또는 해롭게 하지 말라.

건강이 의술의 목적이라는 견해는 일견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의술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플라톤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질문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병과 건강에 관련해서 병든 친구들이나 적들에게 잘 해 주거나 잘못 해 줌에 있어 가장 유능한 이는 누구인가요?”<sup>21)</sup> 이 질문은 병 주고 약 주는 데 모두 능한 의사의 양면성을 겨냥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의사의 양면성을 *epistêmê*이라는 이성적 능력 *dynamis*이 지닌 특징으로 설명한다. X에 대한 앎은 그것의 결여에 대한 앎을 함축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앎을 지닌 자는 그것의 결여 *sterêsis*, 즉 질병에 대한 앎을 지니게 된다.<sup>22)</sup>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의사는 병을 만들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람의 대상은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의사가 병을 바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의사는 ‘본성에 어긋나게’ *para physin* 병을 바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본성’ *physis*은 한 존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바를 가리키는 규범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의사가 ‘본성에 따라’ *kata physin* 건강을 바란다는 말은 의사는 마땅히 건강을 바라야 한다는 뜻이다.<sup>23)</sup>

21) 플라톤, 『국가』 332d 10-12.

22)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Theta$  2, 1046b 6-15.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 인용은 Bekker (1831)의 편집본에 의거한다.

23) 아리스토텔레스, 『에우데모스 윤리학』 II 10, 1227a 18-30: “한편 목적은 본성

이러한 규범적 관점에서 의사가 바라는 것이 의술의 목적이다. 갈레노스는 『의술의 구성에 관하여』에서 의술의 목적을 바람의 개념을 통해 표현한다. “우리는 건강을 만들어내길 바라므로 우리가 구성하길 추구하는 기술은 제작적인 기술들의 종류에 속하는 무엇일 것이다.”<sup>24)</sup> 규범적인 의미에서 의사는, 플라톤의 표현을 빌리자면, 건강의 산출을 통해 병든 사람들에게 “잘 해 주는 데”<sup>eu poiein</sup> 유능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사람들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롭게 하거나 또는 해롭게 하지 말라”<sup>ὠφελεῖν ἢ μὴ βλάπτειν<sup>25)</sup></sup>는 히포크라테스의 의료 원칙은 이러한 시각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사실, 이 원칙은 의사가 환자를 해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들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윤리의식으로 넘어선다. 이른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환자에게 이로움을 주되, 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서약이다.<sup>26)</sup>

---

적으로는 항상 좋고, 개별적인 숙고의 대상 또한 좋은 것이다. 이를테면 의사는 약을 줄 것인지에 관해, 장군은 어디에 진지를 구축할 것인지에 관해 숙고할 것이다. 이들에게 목적은 좋은 것, 단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다. 하지만 본성에 어긋나게 그리고 왜곡에 의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이 [목적]이다. *παρὰ φύσιν δὲ καὶ διαστροφῆν οὐ τὸ ἀγαθόν, ἀλλὰ τὸ φαινόμενον ἀγαθόν.* [.....] 왜냐하면 동일한 앎이 동일한 방식으로 건강과 병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데, 앎은 본성에 따라서는 건강을, 본성에 어긋나게는 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바람**boulêsis**도 본성상 좋은 것을 대상으로 하지만, 본성에 어긋나게는 나쁜 것을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사람은 본성상 좋은 것을 바라지만 본성에 어긋나게 그리고 왜곡에 의해 나쁜 것을 바라기도 한다.” 송유례 (2021), p. 127.

24) *CAM* 1, 229 Kühn.

25) *Epid.* 1, 2, 5, 9-10 Littré. 히포크라테스 전집과 그리스-로마 의료 문헌에 자주 인용되거나 적용된 문구이며, 이후 “*primum, non nocere.*”이라는 라틴어 문구로 변용되어 널리 퍼졌다. Van der Eijk (2018), p. 3; p. 18. 히포크라테스 전집 인용은 Littré (1839-1861)의 편집본에 의거한다.

26) *Jusj.* 12-13: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를 이롭게 위해 *ἐπ’ ὠφελείῃ* 섭생법을 쓰는 반면, 환자가 해를 입거나 올바르게 할 수 없는 일을 겪게 하기 위해 그것을 쓰는 것은 금할 것이다.” 여인석, 이기백 (2011), p. 15. 『선서』에서 의술의 입문자들은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를 비롯한 신들에게 서약을 한다. 이 책의 첫 구절에서 아폴론은 ‘*ἱητρὸν*’, 즉 ‘의사’로 불린다.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론은 의술의 신인 동시에 역병**λοιμὸς**의 신이기도 하다(『일리아스』 I 43-52; 61

갈레노스는 『히포크라테스의 「유행병」 1권에 대한 주석』에서 “이롭게 하거나 또는 해롭게 하지 말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원칙이 실제 의료 행위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나는 한 때 그 원칙이 사소하며 히포크라테스에게 걸맞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다. 사실, 나는 만인에게 의사는 환자들에게 이로운 것을 가장 추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많은 이름난 의사들이 사혈이나 목욕, 어떤 약이나 술 또는 찬 액체를 주면서 행한 일로 정당하게 비난받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그와 같은 무언가가 히포크라테스 자신에게도 일어났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와 동시대에 활동한 많은 다른 의사들에게도 일어났을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나는 어쨌든, 만약 내가 환자에게 어떤 강한 치료제를 처방해야 한다면, 사전에 스스로 내가 어떻게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를 끼치지 않을지도 살펴보도록 했다. [...] 그러나 어떤 의사들은 주사위를 던지듯이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처방하는 습관이 들어 있어, 치료제가 듣지 않을 경우 병자들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된다[...] 만약 강한 치료제의 성급한 사용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생긴다면, 지금 히포크라테스가 권고한 것의 힘을 가장 분명히 인식할 것이다.<sup>27)</sup>

위의 인용문에서 갈레노스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의사는 환자들에게 이로운 것을 가장 추구해야 한다(χρηί τὸν ἰατρὸν στοχάζεσθαι μὲν μάλιστα τῆς ὠφελείας τῶν καμνόντων: 148, 5-6).”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환자들에게 이로운 것ὸρphleia은 다름 아닌 건강이다. 이런 식으로 의술의 목적이 건강이라

---

참조). 하지만 『선서』의 저자는 아폴론을 병을 주는 신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신으로서 선서의 증언자로 만든다. 이것은 의술의 양면적 능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이로써 의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주술사 내지 마법사magos와 분리된다. Cavanaugh (2018), pp. 22-23; pp. 28-30 참조. 갈레노스는 『선서』를 히포크라테스의 저술로 인정했다. 갈레노스의 주해서 일부가 시리아어로 번역되었고, 이것이 다시 아랍어로 번역되어 전한다. Jouanna (1997), 214-215 참조.

27) *Hipp. Epid. I. 2*, 50, 17a, 148. 5-149. 13 Kühn.

는 주장은 의사는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이로운 것을 가장 추구해야 한다는 윤리적 요구로 이어진다.

바로 이러한 윤리적 시각에서 갈레노스는 『히포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학설에 관하여』 9권에서 의술의 목적을 논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돌보는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한다. 이처럼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려는 마음이 갈레노스가 말하는 ‘인간애’의 기본 의미가 아닐까? 그렇다면 인간을 사랑하는 의사가 추구하는 목적은 자신이 상대하는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의사가 명예를 사랑하는 자로서 환자를 치료한다면, 환자의 건강을 자신의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추구한다. 이에 반해, 의사가 인간을 사랑하는 자로서 환자를 치료한다면, 환자의 건강을 환자 본인의 유익으로서 추구한다. 결국, 인간애로 인해 의술을 행하는 의사는 환자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환자의 유익을 위해 봉사한다. 갈레노스는 이러한 의사야말로 ‘의사로서’ 의술을 행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해석을 보강해 줄 근거를 『가장 좋은 의사는 철학자이기도 하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갈레노스는 ‘히포크라테스의 기술’, 즉 의술을 ‘인간애적 기술’ *technê philanthrōpos*로 부르고,<sup>28)</sup> 그러한 기술을 배우는 목적이 인간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즉 선행 *euergesia*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를 덕보다 더 존중하고 인간들에 대한 선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 *οὐκ εὐεργεσίας ἀνθρώπων ἕνεκεν ἀλλὰ χρηματισμοῦ* 기술을 배우는 자는 그 [기술]에 상응하는 목적을 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것처럼 위대한 기술을 수련하는 것과 동시에 돈벌이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쪽을 향해 더 열심히 매진하는 자는 다른 한쪽을 경시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sup>29)</sup>

28) *Opt. Med.* 1, 56. 9-10 Kühn.

29) *Opt. Med.* 1, 57. 7-13 Kühn.

이 인용문에서 갈레노스는 인간들에 대한 선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 의술을 배우는 자를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은 인간애적 기술로서 의술의 목적이 인간들에 대한 선행에 있음을 전제한다. 인간에 대한 선행은 다시금 인간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의사가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물론, 인간에게 이로운 것은 의료 행위에만 국한된 목표가 아니라, 인간을 돌보는 ‘인간애적’ 행위 일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고대 문헌에 등장한 ‘*philanthrôpia*’의 주요 의미를 참조하여 갈레노스의 인간애 관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길 시도할 것이다.

### III. 갈레노스의 인간애 관념

그리스어 ‘*philanthrôpia*’는 현전하는 고대 문헌에서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을 가리키는 용어로 기원전 5세기 작품에 처음 등장한다.<sup>30)</sup> 이후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 특히 군주와 철학자의 인간애를 가리키는 말로 전용되었다. 이미 그리스 고전기에 이상적 군주의 덕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리 잡았고, 헬레니즘시대 절대 군주정과 로마 왕정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선전 용어로 사용되었다. 나아가, 동료 시민들 간의 예의바르고 호의적인 태도로 의미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스토아주의의 세계시민사상의 영향 하에서 인류에 대한 사랑을 뜻하기도 했다. 심지어 가혹하지 않은 법과 배우기 쉬운 기술, 고되지 않은 밭일, 개나 말 또는 돌고래 등 인간을 잘 따르는 동물들에게도 적용되었다. 더불어, 부드럽고 너그러우며 친화적이고 세련된 성품을 가리키면서 거칠고 잔인하며, 완고하고 비사교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anpanthrôpia*’와 ‘*misanthrôpia*’의 반대말로 사용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30) ‘*philanthrôpia*’의 고대 전거 및 해석에 관해서는 Berthelot (2003), pp. 17-78 (주제 관련 참고 문헌 소개: pp. 17-18, note 1); De Romiliy (2011), pp. 43-52; 송유례 (2009), pp. 162-163.

‘philanthrōpia’는 문명화된 시민이 체현해야 할 ‘인간적인’ 덕을 가리키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간적인 덕은 그리스 고전기에는 그리스인들, 특히 아테네인들의 특성으로, 로마 제정기에는 헬레니즘 문명인의 대표적 특징으로 제시된다. 고대 후기 로마의 마지막 이교 황제 율리아누스에게서 헬레니즘의 인간애는 기독교의 애덕caritas과 경쟁한다.

도버는 그리스 고전기 문헌의 검토를 바탕으로 ‘philanthrōpia’의 핵심 의미를 친화성 내지 친절friendliness, kindness로 제시했으며, 에델슈타인은 이러한 의미가 고전기를 넘어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기까지 통용되었다고 주장했다.<sup>31)</sup> 실제로 이러한 용법은 로마 제정기에 활동한 갈레노스의 글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의술의 방법』에서 바다에 사는 개(아마도 물개)와 물에 사는 개를 대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 이것은 길들어 있고 사람을 좋아하지만philanthrōpon, 저것은 공격적이고 거칠다.”<sup>32)</sup> 여기에서 형용사 ‘philanthrōpon’는 분명 인간과의 친화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친절함이나 친화성을 의술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나 동기로 내세울 수 있을까?

갈레노스처럼 기원 후 2세기에 활동한 철학사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에서 플라톤이 ‘philanthrōpia’를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었다고 전한다. ①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악수하며 반기는 것; ② 역경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우려고 하거나 도울 수 있는 것βουλευτικὸς ἢ παντὶ τῷ ἀποχρῶντι; ③ 환대와 식사대접을 좋아하는 것, 함께 하길 좋아하는 것φιλοσυνοσιάζειν. ①과 ③은 친화성 내지 사교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한 데 묶을 수 있다. 디오게네스는 ②를 선행 내지 자선εὐεργετεῖν 개념과 연결시킨다.<sup>33)</sup>

이와 유사하게 플라톤의 이름 아래 전승된 용어 사전인 『정의집』

31) Dover (1994), p. 201; Edelstein (1956), p. 392.

32) *MM* II 7, 129. 12-13 Kühn: ἡμερον γὰρ τοῦτο καὶ φιλόανθρωπον, ἐπίβουλον δ’ ἐκείνου καὶ ἄγιον.

33) *DL* III 98, 1-7 Long.

Definitiones에는 ‘philanthrōpia’의 두 가지 정의가 실려 있다. [정의 1] 사람과의 친애에 잘 이끌리는 성향 $\xi\tau\iota\varsigma\ \epsilon\upsilon\acute{\alpha}\gamma\omega\gamma\omicron\varsigma\ \eta\theta\omicron\upsilon\varsigma\ \pi\rho\acute{\omicron}\varsigma\ \acute{\alpha}\nu\theta\rho\acute{\omega}\pi\omicron\upsilon\ \phi\iota\lambda\iota\alpha\omicron\iota\alpha\iota$ ; [정의 2]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려는 성향 $\xi\tau\iota\varsigma\ \epsilon\upsilon\epsilon\rho\gamma\epsilon\tau\iota\kappa\eta\ \acute{\alpha}\nu\theta\rho\acute{\omega}\pi\omicron\upsilon\omega\iota$ .<sup>34)</sup> 이러한 전거들은 ‘philanthrōpia’가 친화성 외에 사람을 도우려는 성향, 달리 말해 선행을 하려는 성향을 의미했음을 보여 준다.

현전하는 문헌 가운데 ‘philanthrōpia’의 동근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5세기에 집필된 아이스퀼로스의 『결박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vincus이다. 이 비극 작품에서 프로메테우스 신은 인간들에게 불을 훔쳐다 준 죄로 가파른 바위에 매달려 맹금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에 처해진다. 형용사 ‘philanthrōpos’는 범죄의 이유 또는 동기를 밝히는 맥락에서 두 번 사용되는데 (11행과 28행), 매번 성격, 기질 또는 태도를 뜻하는 그리스어 ‘tropos’와 함께 나온다. 첫 번째 전거만 대표로 살펴보겠다.

여기 이 주제넘은 자를 강철 사슬의/ 부술 수 없는 족쇄로 높고 가파른 바위에/ 붙들어 매란 말이오. 그자는 그대 [헤파이스토스]의 꽃을/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불의 광채를 훔쳐내/ 필사의 인간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오. 그 짓값으로 그자는 신들에게 벌 받아 마땅하오./ 그래야만 그자는 제우스의 통치에 순응하여/ 인간을 사랑하는 태도를 버리는 법을 $\phi\iota\lambda\alpha\iota\theta\rho\acute{\omega}\pi\omicron\upsilon\ \delta\grave{\epsilon}\ \pi\acute{\alpha}\upsilon\epsilon\sigma\theta\alpha\iota\ \tau\rho\acute{\omicron}\pi\omicron\upsilon$  배우게 될 테니까요.<sup>35)</sup>

위 인용문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태도’를 단순히 친화적인 태도로 이해하기 어렵다. 프로메테우스가 단지 인간들과 친해서 또는 친하기 위해 불을 가져다주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는 오히려 ‘동정’을 말한다. 그는 “불쌍한( $\tau\alpha\lambda\alpha\iota\pi\acute{\omega}\rho\omicron\omega\iota$ : 231)” 인간들을 “동정한( $\acute{\epsilon}\nu\ \omicron\iota\kappa\tau\omega\ \pi\rho\theta\acute{\epsilon}\mu\epsilon\nu\omicron\varsigma$ : 239)”죄로 무자비한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강조할 점은 프로메테우스의 동정이 인간 구제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34) Def. 412e 11-12.

35) 천병희 (2008), p. 347. PV 3-11 Murray.



는 것이다. 그는 인간을 모조리 없애 버리려는 제우스에 맞서 홀로 반기를 들었으며, 인간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했다고 말한다. 그는 비참한(talas: 469) 인간들을 위해 기술들을 발명했다고 말하면서 기술들이 선의(eunoia: 446)의 선물임을 밝힌다. 수난受難 중의 신은 인간들의 모든 기술은 자신이 준 것이라고 자랑한다(506). 이러한 언명은 인간의 취약성을 극복 또는 보완하려는 선의에서 기술이 생겨났음을 암시한다. 프로메테우스적 인간애는 취약한 인간에 대한 동정과 그러한 인간을 구제하겠다는 선의로 이해될 수 있다. 의술은 그러한 인간으로부터 생겨난 기술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으로 제시된다.<sup>36)</sup>

이러한 전거는 갈레노스가 의술의 목적으로 제시한 ‘*philanthrōpia*’는 역경에 처한 사람을 누구든지 돕는 것, 사람들에게 선의를 가지고 선행을 하려는 마음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해석은 갈레노스가 환자의 건강을 의술의 목적으로 확립하고, ‘이롭게 하거나 아니면 해치지 말라’는 히포크라테스의 권고를 의료의 원칙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선의나 선행을 하려는 성향과 친화적인 성향이 상호배제적인 것은 아니다. 플라톤이 묘사하는 소크라테스에게는 두 성향이 서로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은 『에우튀프론』에서 소크라테스의 철학 활동의 동기를 밝히면서 인간애를 언급한다.

아마도 자네가 자신을 드물게 내보이고, 자네의 지혜를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평판이 나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인간애로 인해 *ὕπὸ φιλάνθρωπίας*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모든 사람에게 넘쳐서 퍼주듯이 말한다는 인상을 그들에게 줄까 두렵다네. 보수 없이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내 말을 듣길 원한다면, 기꺼이 돈을 보태주면서 까지 그런다고 말이네.<sup>37)</sup>

36) *PV* 476-483 Murray.

37) 플라톤, 『에우튀프론』 3d5-9. 송유레 (2008), pp. 11-12; pp. 22-23.

여기에서 소크라테스의 인간애는 에우튀프론의 비사교성과 인색함에 대비된다. 특히, 보수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심지어 “돈을 보태 주면서까지” 자신이 가진 것을 주려는 넉넉함이 강조되어 있다. 이 점은 사람들에게 선행 내지 자선을 하려는 성향과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철학 활동을 통해 아테네인들에게 “최대의 선행(τὴν μεγίστην εὐεργεσίαν: 36c 3-4)”을 베풀 “자선가(εὐεργέτη: 36d 4)”임을 자부한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의 인간애에는 친화적인 성향과 선행을 하려는 성향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의 회상』에서 묘사한 소크라테스의 인간애에서도 보수를 바라지 않는 무상성無償性과 아낌없이 주는 넉넉함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들과 반대로 민중적이고 인간을 사랑하는 φιλόανθρωπος 사람임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는 시민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결코 수업에 대한 보수를 요구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에게 아낌없이 ἀφθότως 나눠주었기 때문이다.<sup>38)</sup>

위-아리스토텔레스의 『덕과 악덕에 관하여』에서 인간애는 명시적으로 관후寬厚의 덕과 연결된다. “관후에는 성격의 유연함, 유순함과 인간애 그리고 연민을 느끼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이 뒤따른다.”<sup>39)</sup> 인간애와 관후의 연결은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속하는 『지침』에서도 발견된다. 물론,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직업인들’이었다. 하지만 저자는 환자의 사정을 살펴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치료할

38) *Mem.* I 1, 60. 1-5 Marchant.

39) *Vit.* 1250b 31-34: ἀκολουθεῖ δὲ τῇ ἐλευθερίῳ τοῦ ἥθους ὑγρότης καὶ εὐαγωγία καὶ φιλανθρωπία καὶ τὸ εἶναι ἐλεητικὸν καὶ φιλόφιλον καὶ φιλόξενον καὶ φιλόκαλον. 에델슈타인은 ‘philanthrōpia’를 ‘friendliness’로 번역한다. Edelstein (1956), p. 401.

것을 권장한다.

[수입에 관해서는] 나는 너무 비인간적으로 되지 말고 *μη λήν ἀπανθρωπίην εισάγειν*, 적어도 환자의 여유와 재산을 살펴보길 요구한다. 때로는 무상으로 *προῖκα*, 이전에 받은 감사를 기억에 떠올리거나 현재의 좋은 평판을 생각하면서 [치료하라]. 궁핍한 이방인에게 베풀 기회가 있다면, 그와 같은 이들을 가장 많이 도와라.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 기술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ἡν γὰρ παρῆ φιλανθρωπίη, πάρεσι καὶ φιλοτεχνίη*. 사실, 어떤 병자들은 자신의 상태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의사의 훌륭함에 흡족하여 건강을 회복한다.<sup>40)</sup>

위의 인용문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비인간적임’과 대조를 이룬다. 이때 ‘비인간적임’이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치 않는 몰인정하고 인색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정이 있으며 인심이 후하다는 의미에서 ‘인간적인’ 태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지침』의 저자는 이러한 의사의 인간애가 환자의 건강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sup>41)</sup>

갈레노스 또한 완전한 무상 의료를 주장하지 않지만, 의술의 목적이 돈벌이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가장 좋은 의사는 철학자이기도 하다』에서 철의의사는 오히려 돈을 경시할 것이며, 권세 있는 자를 ‘히포크라테스의 기술’이 필요한 한 인간으로 치료하되, 가난한 이들의 치료에 많은 시간을 바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2)</sup>

40) *Praecept.* 6, 2-9 Littré.

41) 에델슈타인은 위 인용문에 언급된 ‘*φιλανθρωπίη*’의 의미를 ‘친절함’으로 새겼다. 이러한 의미가 스토아주의자 크뤼십포스가 제시한 정의, 즉 ‘인간들에 대한 친절한 대우’(SVF III 701 Von Arnim: *φιλική χρῆσις ἀνθρώπων*)에 상응함을 지적하면서 『지침』에서 스토아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한다. Edelstein (1956), p. 402, note 20. 하지만 친화성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넉넉한 마음과 결합될 수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나아가, 크뤼십포스의 정의는 ‘*philanthrōpia*’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가운데 하나일 뿐, 스토아주의의 특수한 관념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해 볼 때, 갈레노스가 의료 행위의 이유 내지 동기로 제시한 인간에 관념은 역경에 처한 인간들에게 이로움을 주려는 선의를 기본 의미로 하되, 이와 관련된 후한 인심 또는 인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간에는 친화적인 성향과 결합될 수 있다.

실제로, 갈레노스는 『히포크라테스의 「유행병」 6권에 대한 주석』에서 의사가 환자를 상대함에 있어 지녀야 할 친절함 내지 인자함의 의미로 ‘*philanthrōpia*’을 사용한다. 그런데 그는 의사가 환자들에게 너무 상대하기 쉬워 보이면 신뢰감을 줄 수 없고, 급실거리면 멸시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렇다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환자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미움을 받아 마땅하게 보여서는 안 되듯이, 멸시받아서도 안 되며, 인자하고 절제 있으며 유쾌한 중에도 근엄함을 지켜야 한다.”<sup>43)</sup>

물론, 이러한 종류의 친화적 성향은 환자의 환심을 사려는 아부 성향과 구분된다. 갈레노스는 특히 높은 보수를 목적으로 환자의 욕구에 종사하는 것, 가령 건강에 해롭지만 쾌락을 제공하는 처방을 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이로운 것을 수행하라는 ‘기술의 원칙’*logos tēs ousias*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렇지만 환자를 크게 상하지 않게 하거나 쉽게 회복시킬 수 경우에는 환자의 뜻을 배려하는 호의*charis*를 보일 것을 권한다.<sup>44)</sup>

42) *Opt. Med.* 1, 57. 7-58. 10 Kühn.

43) *Hipp. Epid. VI.* 17b 146. 4-6 Kühn: ἐν τῷ φιλανθρώπῳ καὶ μετρίῳ καὶ ἤδει τὸ σεμνὸν φυλάττειν.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속하지만 후대에 저술된 『의사에 관하여』 (*De medico*)에서도 ‘*philanthrōpia*’는 인자하고 친절한 성품을 가리킨다. “[의사는] 성격이 아름답고도 훌륭해서 모두에게 근엄하기도 하고 인자하기도 하다 *φιάνθρωπον*. 왜냐하면 성급한 성격과 쉬운 성격은 설령 그것이 매우 유용하더라도 멸시받기 때문이다.”(1, 9-11 Littré)

44) *Hipp. Epid. VI.* 17b 135. 4-136, 12 Kühn. Deichgräber (1970), pp. 16-18. 갈레노스는 『히포크라테스의 「격언」에 대한 주석』 (2, 38, 17b 2, 537 Kühn)에서 이러한 호의가 단지 환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로움을 줄 때,

주의할 점은 갈레노스가 인간애가 함축하는 인자함을 동정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과 구분한다는 사실이다.<sup>45)</sup> 갈레노스는 『혼합에 관하여』에서 이상적인 영혼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찬가지로 그는 영혼에서도 만용과 비겁, 망설임과 서두름, 연민과 질시 사이에서 정확히 중간이다. 그러한 자는 명랑하고, 다정하며, 인자하고 이해심이 깊다.”<sup>46)</sup> 여기에서 갈레노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론의 도식에 따라 연민과 질시는 만용과 비겁처럼 서로 대립하는 악덕으로, 인자함은 중용의 덕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연민을 악덕으로 간주하진 않는다. 그는 『수사학』에서 연민 $\epsilon\lambda\epsilon\omicron\varsigma$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연민을 파괴적이거나 고통스러운 해악이 일어나선 안 될 자에게 나타날 경우 느끼는 어떤 고통으로 자신이나 자신에게 속하는 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그것도 가까이 나타날 때 느끼는 것이라고 하자.”<sup>47)</sup>

갈레노스에게 연민은 지양해야 할 감정인데 반해, 인자함은 바람직한 영혼의 상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그는 연민 없는 인자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연민 없이도 곤경에 처한 사람을 넉넉히 돕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실제로 스토아에서 이러한 견해를 옹호했다. 키케로는 『투스쿨룸 대화』 4권에서 연민을 둘러싼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스토아주의의 논쟁을 소개한 후, 스토아주의의 입장

---

즉 치료를 더욱 용이하게 해 줄 때,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Cf. Jouanna (1997), pp. 224-225.

45) Pace Edmund Pellegrino & Alice Pellegrino (1988), p. 35. 이 논문의 저자들이 지적했듯이, 기원후 1세기에 활동한 의사 스크리보니우스 라르구스는 연민(misericordia)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의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f. Edelstein (1956), pp. 411-414; Mudry (1997), pp. 307-311.

46) *Temp.* II, 1, 576. 10-13 Kühn: ὡσαύτως δὲ καὶ τῇ ψυχῇ μέσος ἀκριβῶς ἐστὶ θρασυτητός τε καὶ δειλίας, μελλησμοῦ τε καὶ προπετείας, ἐλέου τε καὶ φθόνου. εἴη δ' ἂν ὁ τοιοῦτος εὖθυμος, φιλόστοργος, φιλόανθρωπος, συνετός.

47) *Rhet.* 1835b 13-16: ἔστω δὴ ἔλεος λύπη τις ἐπὶ φαινομένῳ κακῷ φαρτικῷ ἢ λυπηρῷ τοῦ ἀναξίου τυγχάνειν, ὃ κἂν αὐτὸς προσδοκῆσειεν ἂν παθεῖν ἢ τῶν αὐτοῦ τινα, καὶ τοῦτο ὅταν πλησίον φαίνεται·

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데 [소요학과에서는] 시샘과 시기와 연민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왜 연민입니까? 우리는 연민 없이는 관후할 수 없습니까?”<sup>48)</sup>

갈레노스에게 인자함 내지 인간애는 고통 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함께 고통을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나쁜 것을 괴로워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초월하여 좋은 것을 하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sup>49)</sup> 갈레노스의 인간애는 이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사랑의 행위, 즉 선행을 통해 실현된다.<sup>50)</sup> 이러한 인간애 관념에 입각하여 갈레노스는 의술을 ‘인간애적인 기술’ *technê philanthrôpon*, 즉 인간을 이롭게 하는 여진 기술 仁術로 확립하길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sup>51)</sup>

---

48) *Tus. disp.* IV 56 Pohlenz: At etiam aemulari utile est, obrectare, misereri. Cur misereare potius quam feras opem, si id facere possis? an sine misericordia liberales esse non possumus? 키케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따라 연민을 “불의로 인해 고생하는 타인의 불행 때문에 생기는 고통” *aegritudo ex miseria alterius inuria laborantis*으로 정의하고 라틴어 ‘*misericordia*’를 번역어로 사용한다 (IV 18 Pohlenz).

49) 드 로밀리는 인간애가 상황에 무관하게 행사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관후한 연대를 함축하는 데 비해, 연민은 불행한 상황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평가한다. *De Romilly* (2011), p. 44.

50) 물론, 인간은 다양한 수준에서 인간을 사랑한다. 덕으로서의 인간애는 인간 사랑의 이상을 가리킨다. 인간애의 덕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선행의 동기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선행을 통해 스스로를 실현한다. 이 경우, 선행은 ‘실천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 사랑의 의미에서 인간애는 의술을 비롯한 기술 일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실천적 사랑이 덕의 실현인 이상, 그리고 덕의 실현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한, 사랑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51) 유가의 대표적인 덕인 인仁이 측은지심에 근거하고 연민을 포함하는 한, 갈레노스의 인간애는 유가적인 의미에서 어짊을 의미할 수 없다. 오히려 갈레노스는 어짊의 덕을 유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했다고 볼 수 있다.

#### IV. 철인 의사의 모범을 찾아서:

##### 갈레노스의 히포크라테스주의

갈레노스는 의술을 인간애적 기술로 확립하기 위해 ‘고대인들’*hoi palaioi* 을 소환했다. 그는 『히포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학설에 관하여』에서 히포크라테스(기원전 460-370?)와 디오클레스(기원전 4세기) 그리고 엠페도클레스(기원전 490-430)의 의료 활동을 ‘인간애’라는 개념으로 특징지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 고전기에 활동한 의사들이다.

무드리는 갈레노스가 인간애를 그리스 고전기 의사들에게 귀속시킨 것을 “확실히 시대착오적”이라고 평가했다.<sup>52)</sup> 에델슈타인은 갈레노스가 후대의 관념들을 그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로 투사했다고 비판하면서 고전기 의사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이들조차 갈레노스가 말하는 인간애에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의료적 실천의 동기는 그저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53)</sup>

사실상 우리는 갈레노스가 호명한 고대인들이 스스로 의술의 목적을 ‘인간애’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하려고 시도했는지 현전하는 문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 인간애를 귀속시키는 것이 시대착오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으며, 그들의 의료 활동이 생계를 위한 돈벌이에 불과했다는 주장 역시 입증될 수 없다. 하지만 갈레노스가 후대의 관념을 그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로 투사했다는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갈레노스의 인간애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관념들은 이미 그리스 고전기 문헌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는 갈레노스가 견지한 고대 문헌 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는

52) Mudry (1997), p. 312. 무드리는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나타난 의사들의 행동 규칙은 의사의 직업적 효율성에 종사하는 것이지 타인을 구제하기 위한 선의 *bienveillance*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3) Edelstein (1956), pp. 394-396.

고대 문헌의 해석에 후대의 관념을 무반성적으로 적용하는 시대착오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고대 작가의 언어를 그가 살았던 시대의 용법에 비추어 해석하는 ‘호메로스는 호메로스로부터’Homerum ex Homero라는 원칙을 내세웠다.<sup>54)</sup> 실제로 그는 고전기 문헌에 정통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5)</sup> 그러므로 그가 기술의 목적에 대한 고전기 사유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간에’의 고전기적 관념들을 소환했을 수 있다.

그러나 갈레노스가 『가장 좋은 의사는 철학자이기도 하다』에서 히포크라테스를 인술을 성취한 의사를 넘어 철학자로 내세우며, 히포크라테스의 진정한 후예라면 철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그는 현실보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sup>56)</sup> 우리는 그가 그린 히포크라테스의 초상에서 어려서부터 철학에 입문하고 평생을 철학과 의학의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결합을 위해 노력한 갈레노스 자신의 자화상을 엿볼 수 있다.<sup>57)</sup> 하지만 ‘철인 의사

54) 갈레노스는 『히포크라테스의 「유행병」 3권에 대한 주석』 (1, 4, 17a 496-524 Kühn)에서 문헌 해석을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히포크라테스의 책을 해석할 때엔 히포크라테스의 가면을 써야지, 히포크라테스 이후의 이론을 통해 설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Von Staden (2009), pp. 134-135.

55) 갈레노스는 그리스 고전기 문화의 복고를 시도한 이른바 ‘제2 소피스트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에 활동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뛰어난 고전 교육을 받았다. Brockmann (2009), pp. 116-118. 갈레노스는 고전 교육을 통해 그리스 고전기의 위대한 아티카 저자들뿐만 아니라, 호메로스의 이오니아 방언에도 익숙한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집필했다. Manetti (2009), p. 159.

56) *Opt. Med.* 1, 60. 8-9; 63. 1-2 Kühn. 갈레노스가 묘사한 ‘철학자 히포크라테스’는 ‘비역사적인 구축물’ahistorical construction이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Cf. Nutton (2020), p. 78. 이와 달리, 여인석은 피에르 아도가 제시한 ‘삶의 방식’로서의 ‘철학’이라는 관념을 인용하며, 갈레노스가 말하는 철학자는 ‘삶의 전문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인간 모습’이라는 주장을 제안한다. 여인석 (2018), p. 21.

57) 갈레노스와 달리, 켈수스는 히포크라테스를 의술을 철학으로부터 분리시킨 인물로 평가한다(cf. Celsus, *De Medicina*, Prooemium 8). Spencer (1935), pp. 4-5; Jouanna (1997), pp. 240-241 참조. 갈레노스의 철학과 의학 교육 및 자기 평가에 대해서 Brockmann (2009), pp. 109-129 참조.



히포크라테스'가 현실과 전혀 무관한 허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히포크라테스는 이미 고전기에 의료계의 '페이디아스'이자 의술을 방법론을 지닌 체계적인 앎으로 만든 인물로 평가되었다.<sup>58)</sup>

갈레노스는 그리스 고전기 의술에 큰 족적을 남긴 히포크라테스라는 역사적 인물이 남긴 지적 유산을 계승하고자 했다. 그가 도모한 계승은 말과 글의 전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낸 정신의 계승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그는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 플라톤과 견줄 수 있다. 갈레노스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통찰하길 원했고, 그가 통찰했다고 여긴 것을 가용한 용어들을 동원하여 개념화하고 이론화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선행의 성향을 가리키는 '인간애' *philanthrōpia*라는 용어의 선택은, 설령 히포크라테스가 그 용어를 사용하적 적지 않다 하더라도, 기술 일반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고전기 사유들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묘수로 평가된다.

갈레노스는 스스로 자신의 과업을 도로 건설에 빗대어 그동안 소홀히 방치된 히포크라테스 의술의 길을 다시 열고, 보수하고 확장하면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규정했다.<sup>59)</sup> 이런 식으로 그는 자신을 히포크라테스 의술의 적법한 후계이자 권위자로 만들었다. 그 결과 갈레노스의 히포크라테스주의가 서양 고대를 대표하는 '고전적인' 의술로 성립하게 되었다.

인간을 사랑하여 도운 죄로 천형에 처해진 프로메테우스는 인간 구제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기술자의 '초인적' 정신을 표상한다.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의 영역에서 훔쳐다 인간들에게 전해 준 불은 인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문명의 이기를 상징한다. 의술은 그러한 문명의 이기를 대표하는 인간애적 기술이다. 갈레노스의 철인 의사는 비참한 운명의 인간들을 동정하는 신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운명을 함께 짊어진 동료 인간이다. 하지만 그의

58) 플라톤, 『프로타고라스』 311b-c; 『파이드로스』 279c-d 참조.

59) *MM* X 8, 10. 632-634 Kühn. 도로 건설이라는 '로마적인' 비유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Brockmann (2009), pp. 118-119 참조.

인간에는, 환자를 사육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한 인간으로 대하고, 그것도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 의연한 자세로 한결같이 선의와 선행으로 대하는 마음은, 실로 프로메테우스의 인간애 못지않게 ‘초인적’이다.

**환자에게 건강을, 인간에게 사랑을!<sup>60)</sup>**

---

60) 경희의료원 정문에 걸렸던 현수막의 문구이다.

## 참고문헌

- 송유레 (2008), 「플라톤의 『에우튀프론』에 나타난 인간애와 경건」, 『철학논구』 36: 5-28.
- 송유레 (2009), 「역사 속의 철인왕: 율리아누스 황제의 인간애」, 『철학사상』 31: 143-178.
- 여인석 (2018), 「“좋은 의사는 또한 철학자이다”: 의사-철학자의 모델 갈레노스를 중심으로」, 『의철학연구』 25: 3-26.
- 아이스퀼로스, 천병희 (2008), 『아이스퀼로스 비극 전집』, 서울: 도서출판 숲.
- 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 김재홍, 이창우 (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도서출판 길.
- 아리스토텔레스, 송유레 (2021), 『에우데모스 윤리학』, 파주: 아카넷.
- 히포크라테스, 여인석, 이기백(2011), 『히포크라테스 선집』, 파주: 나남.
- Amundsen, Darell W. Ferngren Gary B. (1982), “Philanthropy in Medicine: Some Historical Perspectives” in Earl E. Shelp (ed.), *Benevolence and Health Care*, pp. 1-13, Houston, Texas: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Bekker, Immanuel (1831), *Aristotelis Opera*, Berlin: Reimer.
- Berthelot, Katell (2003), *Philanthrōpia judaica: Le débat autour de la “misanthropie” des lois juives dans l’Antiquité*, Leiden: Brill.
- Boudon-Millot, Véronique (2007), *Galien Tome I: Introduction générale; Sur l’ordre des ses propres livres; Sur ses propres livres; Que l’excellent médecin est aussi philosophe*, Paris: Les Belles Lettres.
- Boudon-Millot, Véronique (2013), “What is a mental illness, and how can it be treated? Galen’s Reply as a doctor and philosopher” in William V. Harris (ed.), *Mental Disorders in the Classical World*, pp. 129-145, Leiden: Brill.
- Boudon, Véronique (2018), *Galien Tome II: Exhortation à l’étude de la médecine. Art médical*, Paris: Les Belles Lettres.
- Broadie, Sarah, Rowe, Christopher (2002),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ockmann, Christian (2009), “„Groß war der Name Galens.” Die Selbstdarstellung eines Arztes in seinen wissenschaftlichen Werken,” *Medizinhistorisches Journal*, 44

(2): 109-129.

Cavanaugh, Thomas A. (2018), *Hippocrates' Oath and Asclepius' Snake. The Birth of the Medical Profes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eichgräber, Kar I(1970), *Medicus gratusus. Untersuchungen zu einem griechischen Arztbild*,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De Lacy, Philip (2005), *Galen De Placitis Hippocratis et Platonis, Libri VI-IX*, Berlin: Akademie Verlag.

De Romiliy, Jacqueline (2011), *La douceur dans la pensée grecque*, Paris: Les Belles Lettres.

Devinant, Julien (2020), *Les Troubles psychiques selon Galien*, Paris: Les Belles Lettres.

Dover, Kenneth James (1994), *Greek Popular Morality in the Time of Plato and Aristotle*,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Edelstein, Ludwig (1956), "The Professional Ethics of the Greek Physician,"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30(5): 391-419.

Galen, Johnston, Ian (2016), *On the Constitution of the Art of Medicine; The Art of Medicine; A Method of Medicine to Glaucon*. London,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Jouanna, Jacques (1997), "La Lecture de l'Éthique hippocratique chez Galien" in Hellmut Flashar, Jacques Jouanna (ed.), *Médecine et morale dans l'antiquité*, pp. 211-244, Vandoeuvres-Genève: Fondation Hardt.

Kühn, Carl Gottlob (1822-1833), *Claudii Galeni opera omnia*, Leipzig: C. Cnobloch.

Littre, Émile (1839-1861), *Oeuvres complètes d'Hippocrate*, Paris: J. B. Baillière.

Long, Herbert S. (1964), *Diogenis Laertii vitae philosophorum*, Oxford: Clarendon Press.

Manetti, Daniela (2009), "Galen and Hippocratic medicine: language and practice" in Christopher Gill et al. (ed.), *Galen and the World of Knowledge*, pp. 157-17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rchant, Edgar C. (1921), *Xenophontos opera omnia*, Oxford: Clarendon Press.

Mudry, Philippe (1997), "Éthique et médecine à Rome: La Préface de Scribonius Largus ou l'affirmation d'une singularité" in Hellmut Flashar, Jacques Jouanna (ed.), *Médecine et morale dans l'antiquité*, pp. 297-322, Vandoeuvres-Genève: Fondation Hardt.

Murray, Gilbert (1955), *Aeschylus tragoediae*, Oxford: Clarendon Press.

Nutton, Vivian (2020), *Galen: A Thinking Doctor in Imperial Rome*, London: Routledge.

- Pellegrino, Edmund, D., Pellegrino, Alice A. (1988), "Humanism and Ethics in Roman Medicine: Translation and Commentary on a text of Scribonius Largus," *Literature and Medicine* 7: 22-38.
- Petit, Caroline (2009), *Galien Tome III: Le médecin. Introduction*, Paris: Les Belles Lettres.
- Pohlenz, Max (1918), *M. Tulli Ciceronis scripta quae manserunt omnia*. Leipzig: Teubner.
- Spencer, W. G. (1935), *Celsus: On Medicine Books 1-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hpanus, Henri (1578), *Platonis Opera quae exant omnia*. Geneva: Henri Estienne.
- Van der Eijk, Philip J. (2005), *Medicine and Philosophy in Classical Antiquity. Doctors and Philosophers on Nature, Soul, Health and Disea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on Arnim, Hans F. A. (1903-24), *Stoicorum veterum fragmenta*, Leipzig: Teubner.
- Von Staden, Heinrich (2009), "Staging the past, staging oneself: Galen on Hellenistic exegetical traditions" in Christopher Gill et al. (ed.), *Galen and the World of Knowledge*, pp. 132-15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Galen's Conception of Love for Humans (*philanthrôpia*)  
and the Goal of Medical Art

Song, Euree

Galen introduces love for humans (*philanthrôpia*) as a pivotal motive for medical practice and attempts to establish medicine as a 'philanthropic' ar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Galen's conception of love for humans. First, I make clear that while health is the specific goal of medicine, what is beneficial for humans is the general goal of the art of caring for humans. Next, it is shown that Galen's conception of love for humans has the basic meaning of a disposition to benefit and help fellow humans in adversity, and includes the related meanings of generosity and kindness, but is distinct from feelings of compassion or pity. In addition, it is argued that the key elements constituting Galen's conception of love for humans are to be found already in the literature of the Greek classical period. This suggests that Galen, who was active in the Roman Imperial period, established a model of the 'philanthropic' philosopher-doctor by appealing to the ideas of the Greek classical period. Based on this, I suggest that Galen's conception of love for humans crystalizes classical thoughts about the goal and function of art (*technê*) in general. I conclude that it is not simply an anachronistic error on his part to attribute this love for humans to classical doctors including Hippocrates.

[Key Words] beneficence, Galen, medical art, *philanthrôpia*, philosopher-doctor

논문 투고일: 2022. 08. 08

심사 완료일: 2022. 10. 19

게재 확정일: 2022. 10. 19